

MB정부 '호남인맥 죽이기' 실체 충격

공공기관장·국회의원·공무원 집중사찰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서 드러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됐던 '호남 인맥 죽이기'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 정·관계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불법 사찰과 호남 인맥 죽이기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하면서, 검찰의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5일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진경택(45·구속기소)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외장 하드 디스크에 보관되어 있던 불법 사찰 자료를 확보했다. 자료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사찰내용은 물론 이명박 정부 내의 호남 인맥 제거 정황이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다. 불법 사찰을 당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새누리당 현기환, 정두언 의원과 민주당 통합당 백원우, 이석현 의원 등으로 주로 정권에 날을 세웠던 인사들

이다. 실제로 2009년 1월21일 작성된 '해야할 일 12'라는 제목의 파일에는 '사하구청장 조정화 : 현기환 의원이 대통령 비방. 친박쪽으로 9일 상경. 국회의원은 현 의원을, 산하단체는 광주은행 감사(정두언과 친함)를 타깃으로'라고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광주은행 감사는 강경수씨로 국민은행 인사본부장과 한나라당 광산을 당협위원장을 지냈으며 정두언 의원 계열로 분류됐었다. 백원우·이석현 의원의 경우, '1014 해야할 일'이라는 제목의 파일에 '백원우·이석현 관련 후원회, 동향, 지원 그들이 실제가 드러나도록 보고하라'는 내용이 수차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전 과장의 하드 디스크에는 호남 인맥 죽이기의 실체도 담겨져 있었다. 2009년 5월 28일 작성된 파일에는 강계두(58) 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 이사장(현 광주광역시 부시장)에 대해 "광주일고, 전 재경부 국

고국장 출신, 인사에서 호남과 고려 대만 죽어라 쟁긴다고 한다"고 되어 있고, "따라붙어서 잘라라"라는 지시가 적혀 있다. 또한, '1급 중 꼭 날려야 할 사람'으로 당시 정승 농림부 식품산업본부장이 지목됐다. 당시 그는 농식품부 내에서 호남 인맥의 대표 주자로 꼽혔었다. 같은 해 4월 14일 작성된 '내 할 일'이라는 파일에는 우재창(58) 전 한국 학술진흥재단 사무총장에 대해 '목포 대 파가지고 확실히 정리 쏘(요)'라고 적시됐다. 우 전 총장이 지난 2009년 3월 물러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관실에서

그가 교수로 재직하는 목포대를 '사찰'해서라도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정부 내의 호남 출신 공직자들은 "현재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각 부처와 산하 기관에 포진했던 호남 인맥의 상당수가 자리를 뜨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호남 출신의 고위 관료는 "참담한 현실이며 극복해야 할 구시대적 유물"이라며 "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15일 '산성 수돗물 대란'을 일으킨 용연정수장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산성 수돗물' 대란 진실 공방

공사업체 "약품 공급 밸브 손댄 적 없다" 반박

광주시 수돗물 오염사태와 관련, 애초 약품 공급밸브를 잘못 조작해 사고를 촉발한 것으로 알려졌던 건설업체가 '공사 중 밸브를 건드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광주시 측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작업 근로자들이 밸브를 잘못 조작해서 오염사태가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위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5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수돗물 오염사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용연정수사업소 소속 공무원 2명과 근로자 4명을 전날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응집제(PAC) 과다 투입으로 산성 수돗물 공급의 원인이 된 약품드레인 밸브를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와 감독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 같은 위험성을 근로자들에게 고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사태 초기부터 이번 사고를 근로자들의 단순 실수로 보고한 용연정수장 소속 공무원들은 경찰에서 "공사를

감독했을 뿐 밸브를 만지거나 밝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현장 근로자들은 "우레만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개만 책임을 씌우려고 하느냐"며 "감독 공무원들도 현장을 왔다갔다 했으니 밸브를 건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업체 대표인 백 모씨도 "사고 당일인 1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정수장 직원들이 잇따라 찾아와 '무언가 만진 것이 없느냐'고 묻고 돌아갔다"며 "당시엔 통상적인 업무인 것으로 알았으나 지나고 보니 정수장 직원들이 그때 이미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수장 측은 애초 상황보고에서 '오후 1시 10분께 약품탱크 수위레벨 경보가 울려서야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았다'고 밝히고 있어 '오전 10시부터 사고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건설업체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애초 발표는 정수장 직원들의 증언에 따른

것"이라며 "누군가는 밸브를 밟았지만, 당분간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사는 용연정수장 2곳, 지원정수장 1곳 등 모두 3곳에 약품 저장탱크 누출액 방지벽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등은 이날 용연정수장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서정성(민주·남구 2) 의원은 "몇 탄톤이 농축이 됐고, 몇 시간 동안 몇 가구에 물이 공급됐는지, 피해 상황 추정치가 전혀 없다"며 "무작정 사태 수습만 할 것이 아니라 알부미없는 미량 이더라도 소아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피해 상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랜드마크 전일빌딩 비엔날레 예술작품으로

서도호씨 9월 신작 선택
'움직이는 호텔'도 제작

광주의 랜드마크였던 전일빌딩이 예술 작품으로 탈바꿈한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 최고의 설치미술가 서도호(50) 씨가 9월 열리는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해 전일빌딩을 소재로 한 신작을 선보인다. <관련기사 12면> 그는 또 '2012 폴ly(Folly) 프로젝트'의 하나로 '움직이는 호텔'을 만들기로 했다. 서씨는 15일 광주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9월 비엔날레 때 전일빌딩과 대인시장, 가톨릭대 기숙사방 등을 활용한 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의 오랜 역사를 함께 하면서도 점차 사라져가고 잊혀져가는 대인시장, 가톨릭대 기숙사(3×3.9m), 전일빌딩 등을 통해 사라져가는 공간과 기억에 대해 온기를 불어넣고 싶다는 게 서씨의

설명이다. 전일빌딩 내 한 공간을 선택해 방 전체를 종이로 덮고 연필(혹은 연필)로 문지르는 프로타주 방법을 사용해 역사의 흔적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작업 때는 눈을 가리고 촉각에만 의존하겠다는 구상이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어루만지느냐에 따라 그 공간의 숨겨진 스토리가 나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는 이 작업을 통해 역사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10년 가까이 선보였던 천 작업 대신, 프로타주 기법으로 작품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작품으로 만들어져 전시기까지의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광주와 '인연'이 있는 것 같고 작가로서 이번 작품을 거는 기대도 크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오늘의 여수엑스포

▶ 관련기사 3면

- ◇ 국가의 날-중앙아프리카공화국(한국관 다목적홀·오전 10시)
이번 박람회에선 세계 104개국의 문화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전시 기간 매일 특정 국가를 정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전통 문화공연 등을 펼치는 '국가의 날' 행사에 오늘은 아프리카 대륙 중앙에 있는 내륙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초대된다. 국가 홍보 동영상 상영되고, 아프리카의 생명과 야성을 느낄 수 있는 전통춤 공연도 곁들여진다.
- ◇ 지자체 날-경기도(천막극장·오후 1시40분)
- ◇ 감비아 궁정음악사들의 연주(해양광장·밤 12시 30분)
- ◇ 아르헨티나 탱고 공연(해양광장·오후 6시)
- ◇ 기후변화심포지엄(엑스포홀·오전 9시)
- ◇ 엑스포 가요 페스티벌(015B), 천막극장(오후 8시20분)
- ◇ 누적 관람객 수=12만1249명(15일 오후 6시 현재)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제57회 호남예술제 절정 ▶ 화보 5면

문화전당 건립현장 탐방프로그램

아시아문화전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준공이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건물 외형이 대부분 완성됨에 따라 매월 2회, 건립현장을 시민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 1차탐방 : 2012. 5.23(수) 14:00~15:00
- 탐방인원 : 100명 이내
- 신청방법 : **NAVER** 문화마루 공식카페 **검색** 에서 신청
• 단체관람 신청은 전화로 문의 (062-236-0481)

문화체육관광부



향후 탐방일정(매월 격주 화요일)

6월-5일, 19일 / 7월-3일, 17일 / 8월-7일, 21일 / 9월-4일, 18일 / 10월-2일, 16일 / 11월-6일, 20일

